

buddhanews.com

#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

## 25면에서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고, 책을 찾아보아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탓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살도 약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한 탓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가고 일러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갇혀져서 닭을 벗어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한 발짝 떼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놓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잘나 화해서 나두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게 다하면서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애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애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놓은 대로 없애지는 것어요.

잘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깐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

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천을 항상 해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이 있고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나는 항상 묻는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립니까?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부처님 앞에는 길고 짧은 것도 없고 어떤 거든지 다 맞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지 않는 게 어딴습니까?

**질문자4(남):** 저도 앞의 발표자하고 같은 수험생이거든요. 어저께 저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3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법사스님께서, 아까 발표자도 말했지만 '나를 버려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

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발이 있겠나.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발은 운전수와 같고 기함과 같거든요.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

또 뻥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 본래 자발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 저 바.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지?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믿어야 돼.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발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거 길 찍어서 놓는다는 거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 모르는 거는, (대중 웃음)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울퉁갈퉁이 돼서 잘못돼.

이런 소리를 들었어. 저, 누구 이름 있어버렸지. 저기 어디? (대중스님 쪽을 보시며) 애, 하하하 그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벽에도 붙여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셸로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주고 벽에 붙여놓고 한번 해본다면 그건 진저리 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공부는 절의 스님네들만 하고 있는데 전자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 공부를 가르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신이란 얘기도. 화신으로서 보현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고 또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일체제불에도 먹히들어가진 않아요. 통하지를 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면을 다 버리면서 흡수하고 흡수하면서 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발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마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을 볼 때 여자 남자 모습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거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거 하고, 어떤 남자들은 아이구,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득불이고 이란다 하고. 그 모두 피장파장이요. 피장파장이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슴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넓어야 가슴도 넓어지고 한 가정을 안아서 전 세계를 안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자보다 더 작은 남자가 있고 또 남자보다 더 큰 여자가 있는 거 하면 아주 더 작은 여자도 많고 이리니 이견 중구난방이요.

하여튼 이 한 철 살기에 될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가 딱 떨어져서 깨졌다 하더라도 '아이구, 이걸 깨뜨려서 어떡하냐.' 한다면 '그거 뭐, 이 세상에 몸도 깨지고 죽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아예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그래서 딱칠 게 안 딱치는 게 아닙니다. 딱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딱칠 게 안 딱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딱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죠

서 그런지 법사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라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법화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요.

**큰스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자4(남):**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큰스님:** 그런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애지고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애진다고요. 그랬죠?

**질문자4(남):** 예.  
**큰스님:**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던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었어?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발만 믿어야지 소리

중국으로 갔다는 애 처음에는 어디 있었나?  
**스님:** 방콕요.

**큰스님:** 누가 방콕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된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야.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 내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방콕에서 말을 일튼 일튼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들으니 못해,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 급제,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것을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테 연방 해주고

도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도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써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이지.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세세 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지금 교차로인 중세기에 한 철 살다가 우리 몸을 벗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왜 사람이 살다가 고에서 허덕거리면서 또 늙고 죽어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도리로 나섰는데 이미 그런 과거로부터 나서게끔 다 해놔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니까 또 그 길을 걸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변연히 하는 것도 그냥 그 길을 되풀이해 이 소리죠.

보이는 데서는 이 겁이 그대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겁이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군사도 될 수 있고 겁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겁이 온갖 천차만별로 화해서 솟아있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또 보현행이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울할 뿐이지요. 그리고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대로 내물리는 거죠. 물려서 행

## 양지국약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당뇨. 비만 Diet

### 임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영가들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진족,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법당)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